



GAGU

월간가구가이드

for the **LIVING**

GAGU Guide

Vol.177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잡지 수상

UIPPA

11

Previous to 2010

November 2009

월간가구가이드
MONTHLY MAGAZINE



월간가구가이드 2009년 11월호 / 목판 제 177호 / 1999년 1월 10일 발행 / 발행처 문화관광부 / 발행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3 삼성동 3층 유엔빌딩 155-100 전화 02-543-0904 팩스 02-518-1027 www.gagu.com

STUDIO ZOOM+
TURKEY

STYLE FILE

Wine Holic

MD RESEARCH

가구의 현재, 그리고 미래



LIVING TREND

Previous to 2010

11



세계적인 가구 전문 잡지 연합체 IAFP 멤버 선정

GAGU는 가구에 관한 좋은 정보가 가득한 GAGU Guide를 통하여 우리 가구의 세계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함께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가구, 만드는 이와 사용하는
이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가구, 그런 가구의 좋은 안내자가 되기 위하여 비로소 GAGU의 창간호입니다.



슬림 업홀스토리

Fasem

가죽 의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Fasem은 모스카나 지방의 전통 장인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제품들로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컨템퍼러리한 디자인을 통해 점차 모던한 브랜드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Fasem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죽과 이를 다루는 숙련된

기술에 있는데, 이들의 슬림한 가죽 업홀스토리 제품들은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Ande' 체어에서도 가죽 업홀스토리의 기술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Jeff Miller가 디자인한 'Ande'는 스텝 프레임에 시트와 등받이를 가죽으로 업홀스토리한 제품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라인에서 이들의 노하우를 느낄 수 있다. 등받이를 높인 하이백 스타일의 제품과 슬림하게 볼륨을 넣은 제품이 함께 출시되었으며, 브라운 컬러나 오크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연의 모티브

Coro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모토로 하는 Coro는 자연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거나 인체공학적 형태를 통해 에코를 표현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Branch'는 제품명에서 연상되듯 나뭇가지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의자이다. Isiro Marelli가 디자인한 제품

으로 의자와 테이블, 선베드가 출시되었으며, 스텝 프레임에 알루미늄이나 플렉스글래스(Flexglass) 심판을 사용해 견고하면서도 미래적인 감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웃도어용으로 특수 처리가 된 패브릭을 사용했다. 'Pergola'는 오리지널 형태를 좀더 개인적이고 편안한 것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스텝 프레임에 얇은 슬레이트 판으로 지붕을 제작하였고, 슬라이드 커튼은 아웃도어용 패브릭을 사용하였다.



데니쉬 모더니즘

Skandiform



덴마크 디자인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제품들로 인기를 끌고 있는 Skandiform은 올해에는 좀더 미래적인 형태와 컬러를 가미해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먼저 Jonas Lyndby Jensen이 디자인한 'Dune low'는 인체공학적 형태가 인상적인 이지 체어로 두 가지 크기의 제품이 출시되었다. 화이트 컬러와 오크로 제작된 다리 부분이 믹스되어 모던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 유선형의 시트 부분은 유리섬유로 제작된 것으로 볼륨 컨트롤이 가능하다. 침부와 그레이가 믹스된 컬러가 인상적인 'Jefferson III'는 Alexander Leevik가 디자인한 것으로 도드 패인을 넣어 질감을 더 하거나 하면 시트 부분을 타원형으로 디자인해 다이내믹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 컨템퍼러리

Classicon

클래식 컨템퍼러리라는 수식어구에 잘 어울리는 Classicon과 Eileen Gray

를 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80년 전에 디자인했던 'Bibendum' 소파는 Classicon을 통해 아직도 생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Konstantin Grcic과 같은 신진 디자이너의 제품과 자연스럽게 믹스되면서 새로운 아름다움까지 얻고 있다. 디자이너의 작업을 브랜드의 아이덴티

티로 확장해 새로운 디자인의 동력을 얻어낸 Classicon은 올해에도 Eileen Gray가 디자인한 'Bonaparte'와 'Lou Perou'와 Konstantin Grcic이 디자인한 'Chaco'와 'Odin' 소파를 믹스하는 등 새로운 디자인과 고전 디자인의 믹스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Florian Hubner



테크 디자인

Sicea

혁신적인 테크놀러지를 접목한 테이블로 큰 인기를 끌었던 Sicea는 점차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디자인을 통해 국제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을 바

탕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을 접목하면서 최근 마켓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테이블 이외에도 의자와 소품 가구들을 선보이며 브랜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 등장한 신제품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Chelo'는 이름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제품이다. 40mm 두께의 다리에 16mm 정도 지름을 지닌 튼튼한 교차시커 완성했으며, 상판은 10mm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다. 'Puffa'는 Francesca Fortorani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직경 15mm의 크롬 튼트 프레임에 업홀스토리했으며, 시트가 부드럽고 안락한 것이 특징이다.

